

전남에 귀농어귀촌인 연 4만명 유입

예비상담부터 정착까지 서비스 도시민 수요 맞춤형 정책 효과를 주택구입비 등 883억 지원

2018년 4만761명, 2019년 3만9319명, 2020년 4만1861명이 전남으로 유입됐다. 2021년 통계는 4월말 최종 집계될 예정으로, 4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전남도가 2016년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인구정책특별관 귀농·귀촌 전담팀을 신설해 귀농·귀촌 종합 정보제공, 정책 지원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비상담부터 정착까지 단계별 귀농·귀촌 정책을 펼친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2020년 귀농·귀촌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전남도 귀농산어촌 종합지원 서울센터'를 설치해 도시민 대상 교육 및 상담을 통해 예비상담부터 정착까지 한 번에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귀농·귀촌을 망설이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농

촌에서 살아보기'를 통해 일정 기간 영농·어 교육, 농어촌 삶 체험 등 이후 정착 실패를 최소화할 프로그램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도시민 525명이 참가했다.

전남 귀농·어인의 집과 귀농산어촌 체류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농지·주택 정보 등 종합적인 정보는 물론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임시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귀농 초기 자금부담 해소를 위해 귀농·어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해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올해는 883억원을 들여 귀농·어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비 용자지원, 귀농·어인의 집 제공, 전남 및 농촌에서 살아보기, 귀농산어촌 어울림 마을 조성 등 11개 사업을 추진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가 '전남에서 먼저 살아보기'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등 도시민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귀농·귀촌 정책을 추진해 귀농·귀촌 1번지로 주목받고 있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장기화하고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가 늘어나는 등의 각종 이슈를 겨냥한 유치지원 활동을 펼친 결과 매년 4만여 명이 전남에 유입되고 있다.

통계청 등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로

5·18기념공원 내 미디어월·스마트폴 등 운영

광주시 다음달부터

광주시는 "3월부터 5·18기념공원 내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관리시스템을 도입·가동한다"고 10일 밝혔다.

광주시는 5·18기념공원에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과 5G기술을 적용한 지능형관리시스템을 통해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안전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지능형관리시스템은 광주시와 LG유플러스 컨소시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MEC 기반 5G 공공부문 선도 적용' 국가사업에 선정돼 지난해 말 5·18기념공원에 미디어월, 스마트폴 및 지능형 로프트를 설치하고 모바일 엣지 컴퓨팅을 이용한 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미디어월은 폭 10m, 높이 3m 규모의 반투명 유리로 제작됐으며, 5·18광주민중화운동의 대표적인 영상자료 중 버스 위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5·18광주민중화운동, 광주의

사계절, 시청홍보 등 콘텐츠 총 28편을 제작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미디어월과 스마트기기 간 실시간 양방향 데이터 전송 기술을 적용하고, 시민이 현장에서 프로포즈 등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시 찾고 싶은 펀시티(Fun-City), 광주의 야간경관 명소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복합 사물인터넷(IoT)센서가 장착된 '스마트폴'은 미세먼지 측정, 지능형 CCTV, 열화상카메라, 양방향 통화 비상벨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공원 내 안전사고 등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특히 지능형 로프트는 위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로봇 자체 음성 솔루션으로 주변에 위험을 알리는 서비스도 한다.

이번 사업은 이달까지 시범운영을 거친 후, 3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대선 모의투표체험 하세요"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27일 앞둔 10일 광주선거관리위원회가 북구 벌크커피 전남대직영점에 포토존과 모의투표체험 등을 설치해 투표 참여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4월 개소 광주 상생일자리재단 10명 공채

21~25일까지 접수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이 개소를 앞두고 직원 10명을 공개 채용한다.

10일 광주 상생일자리재단에 따르면 채용 예정 인원은 일반직 7명, 연구직 3명으로 팀장급 2명이 포함됐다.

선발된 직원은 노사 상생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 광주형 일자리 기업 발굴·지원, 노사 상생 문화 조성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원서 접수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며, 채용전면대행업체를 통해 개인정보를 배제하는 블라인드 채용방식으로 진행된다. 상생일자리재단은 이달 중 채용 절차를 마무리하고 4월 개소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양 불고기·곡성 참깨·무안 빨낙지 '입맛 돋우는 전남 미식여행' 오세요

2월 안심관광지 추천

전남도가 '입맛 돋우는 전남 미식여행'을 주제로 맛깔난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 곡성 압록 참깨·은어거리, 무안 빨낙지거리를 2월 안심 여행지로 추천했다.

광양을 서천면 광양 불고기 특화거리에는 숯불구이 음식점이 모여있다. 불고기와 닭 숯불구이 요리가 유명하다. 광양불고기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광양불고기라는 의미의 '천하일미 마로화적'이라 일컫는다. 마로는 광양의 옛 지명이다. 숯에 고기를 구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데다, 감하지 않은 과일 양념을 가미해 달달하면서도 깔끔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다. 불고기만큼이나 인기 있는 닭숯불구이는 손질한 닭을 담백한 양념으로 맛을 내고 석쇠 위에 구워 기름기를 싹 빼지게 해 건강식으로 꼽힌다.

섬진강과 보성강이 만나는 곡성의 압록 참깨·은어거리에선 참깨탕, 참깨계탕, 참깨 수제

비, 은어구이, 은어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참깨탕은 시래기를 넣고, 들깨를 갈아, 된장을 풀어 국물을 낸 다음 생고추와 갖은 야채를 더해 참깨를 두 토막으로 잘라 끓인다. 시원한 국물을 한번 맛보면 잊을 수가 없다.

은어는 섬진강 같은 맑은 물에서 서식하는 민물고기라 비린내가 없고 곡성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다. 동의보감에는 속을 편안하게 해 위를 튼튼히 한다고 적혔다. 청정해역을 보유한 무안은 빨낙지로 유명하다.

갯벌에서 자라 맛이 부드럽고 담백하며 다른 해산물에 비해 타우린·인·철·비타민 등 각종 무기질이 풍부하다. '자산어보'에 '낙지는 기운이 다해 드러누운 소도 일으켜 세운다'고 소개할 정도로 대표적 보양식이다.

무안 빨낙지거리엔 50년 전통의 낙지요리 전문 식당이 있어 운남, 맑은, 청계, 현경면 일대 광활한 갯벌에서 잡은 싱싱한 낙지를 맛볼 수 있다. 낙지탕이랑, 연포탕, 호롱구이가 인기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3278억원 들여 지방하천 정비

홍수 대응능력 강화 건설산업 활력 견인

전남도가 올해 3278억원을 들여 홍수 대응능력을 높이는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전남도는 2월 중 조기 발주에 들어가 총사업비의 60%인 1967억원을 6월 말 이전까지 신속 집행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설산업 활력 증진을 꾀한다는 구상이다.

전남도는 4개 분야 107개 하천에 3278억원을

지원해 도내 소규모 용역사와 건설회사에 수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 분야별로 ▲13개 지방하천에 대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25억원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39개 하천 시설계획용역 148억원 ▲집중호우 및 태풍 내습 시 피해가 우려되는 38개 하천 재해예방사업 1019억원 ▲2020~2021년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17개 하천 2086억원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피해 등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드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역사

와 문화가 깃든 친수공간이 조성돼 지역 주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또 예산 신속집행과 함께 신규 사업 추진 시 지역 건설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에 힘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상기후에 따른 가뭄, 집중호우, 태풍 등 재해로부터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며 "예산 조기집행과 신규 사업 발주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나는 떠났고, 네가 살던 세상의 흔적을 오석의 그리고 싶디

<오석의 대표적 장점>

- ✓ 영구적
- ✓ 종량감
- ✓ 아득함
- ✓ 신
- ✓ 불변함



제이와이석재

문의전화 | 062)464-3466

<주 사용처>

문패, 준공성, 식수석, 묘지용 와비, 납골당 수목장 표시석, 인테리어 돌액자

- 주요제작사이즈 -

1. 100×200×20
 2. 200×200×20
 3. 300×200×50
 4. 400×300×20 (가로×세로×높이)
- 기타사이즈는 문의

[오석]의 특성

경도, 강도가 좋은 오석은 화산석, 화강암보다 더 진귀하게 여겨왔고 왕가나, 부호의 대명사였기에 비석, 표석, 포석, 조각석 이외 많은 자재에 고급품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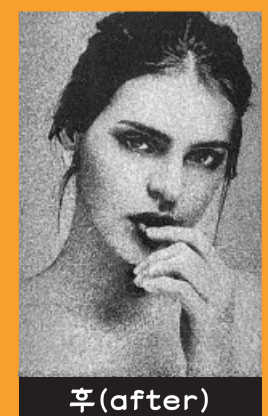
<기존 틀액자>

아크릴, 유리 등 다른물질에 인쇄 후 부착



<틀 자체에 각인>

(오랜시간 변함이 없음)



*오석에 직접 각인하는 적인 특성상 사진과 똑같은 컬러는 불가능하니 이점 감안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